

온 마을이 '복지플랫폼'...광산구 공동체망 구축

공유공간·홀몸어르신 생일잔치 등 주민 주도 마을복지 계획 수립 실행 복지·건강 돌봄 66개 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가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마을중심 복지·건강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상생의 공동체 복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동 단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주민들 스스로 이웃과 마을을 보살피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따라 발 빠르게 '광산형 마을복지 모델' 구축에 나선 광산구는 시범 운영(2019년 우산동)을 거쳐 2021년부터 21개 전체 동에서 주민 주도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선정된 의제를 직접 실행하

록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동별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이나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다. 송정1동의 '공유공간'이 대표적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진열장, 냉장고 등을 두고 쓰지 않는 물품, 먹지 않은 가공식품이나 통조림 등을 누구나 채우고, 필요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

쓰레기는 줄이고, 이웃과 자원을 나누는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입소문을 타며 지금도 왕성하게 운영 중이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도산동은 홀몸 어르신의 생신에 축하파티를 열어 생일케이크와 과일 등을 전달하며 고독감을 해소했다. 신흥동은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집을 찾아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살롱'을 운영했다.

또 어룡동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세대와 반려

식물 기르기를 진행하며 안부를 살폈다. 운남동은 홀로 사는 어르신 나들이를 지원하고, 임곡동은 찾아가는 이불세탁을 제공하는 '수줍글 깔고미' 사업을 진행했다.

비야시장 까망복지마이너스, 삼도동 거동불편 이웃 분리수거 지원 등 자원순환 활동도 활발했다. 수완동은 주민이 함께 식물을 가꾸는 '새싹티움하우스'를 조성·운영하며 정신건강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했다. 일찍부터 광산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축적된 주민자치의 경험과 노하우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다.

실제 이 같은 마을복지 사업들은 동 지사협과 주민이 동네의 욕구를 파악하는 지역사회조사, 의제 공론화 및 선정, 최종 마을복지계획을 확정하는 대동회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복지에 건강까지 더해 21개 동이 주민의 욕구와 마을 현황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와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총 66개 의제가 선정됐다. 어르신 인문학, 외부 단절 세대 안부살핌, 홀몸 어르신 목욕 및 이불빨래 봉사단 운영 등 돌봄을 비롯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활채어 이용 장애인과 어르신의 야외 활동을 돕는 '동네 한바퀴', 마음건강 상담소, 이주민 의료비 지원, 무장애 마을 만들기 등 건강과 관련한 의제 등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장보기 대행, 아이들과 경로당을 있는 세대통합 지원 사업 등도 눈길을 끈다.

이러한 의제와 각 동의 마을복지, 건강계획은 공모 사업, 민관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동 단위 복지플랫폼 기능 확대와 주민 참여 강화를 통해 마을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다"며 "각 동의 의제와 마을복지, 건강계획들이 주민을 이롭게 하는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송정1동 공유공간

지역현안부터 생활민원까지... '광산구 동 주민과 대화' 호평

21개동 주민과 대화 만족도 높아

"지역 현안문제를 비롯한 사소한 생활 민원을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가면서 상세한 답변을 듣게 돼 너무 좋았어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22일간 진행된 '광산구 동 주민과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이다.

올해 진행된 광산구 동 주민 대화는 예년과 달리 마을문제보다 개인의 삶과 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일반 시민이 주인공이 돼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실국장들이 신창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다양한 민원 등을 청취하고 있다.

평소 애로사항 등을 제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분야별 국·소장들로부터 답변도 현장에서 바로 들을 수 있어 구정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755명 중 71.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0분의 대화시간에 대해서도 77.5%가 적절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21개동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접

수된 제안사항만 376건이다.

학교 통학 및 보행 안전, 생활체육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 경로당 지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 거점 공간 확보 등 공통된 민원, 각종 생활 불편 사항을 비롯한 그 지역에 가이만 알 수 있는 현안도 적지 않았다.

특히 야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의 특색과 매력을 살린 활성화 사업 추진, 자원순환가게와 자연숲해

설사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정책 제안도 쏟아졌다. 자전거길 조명 설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 광산구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부서와 연관된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주민 대화에 참여한 송정동의 한 주민은 "구정장을 비롯한 국장들까지 참여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 의지와 노력을 보면서 믿음과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가 6일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등록과 활동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광산구의회 "일하며 연구하는 의회 만든다"

올해 의원연구단체 4개 운영...정책 개발·시책 공동연구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6일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등록과 활동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정과 관련한 정책 개발과 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5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돼 자료수집·현지조사, 각종 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광산형 통합 돌봄 의원 연구모임', '광산구 문화관광 연구회', 'Fun City & Enjoy 광산', '살기 좋은 도시계획 연구회' 4개 의원연구단체가 뒤풀어 된다.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은 윤혜영 의원(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산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광산구 문화관광 연구회'는 정재봉 의원(대표) 등 6명으로 구성돼 광산구 역사·문화의 가

치를 재조명하고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Fun City & Enjoy 광산'은 공병철 의원(대표) 등 5명이 활동하게 되며 광산구를 보다 즐거운 도시,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살기 좋은 도시계획 연구회'는 윤영일 의원(대표) 등 7명이 활동하며,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산구의회는 의원희망 시 추가aro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받기로 했다.

김태완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의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 지원·생명사랑 교육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일 광산구정 7층 운상홀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위원 및 공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일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인 지사협 위원들을 위해 주말 시간으로 특별 편성했다.

이예희 전북완주군 용진읍장을 초빙강사로 나서 '소통으로 돌봄과 내일을 준비하는 복지공동체'를 주제로 지사협 위원의 역할과 행정의 협력 등을 강연했다. 이예희 용진읍장은 복지 분야 이장(里長) 전국 첫 도입(2013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마을을 연구하고 주도적인 행정복지활동을 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어 정미희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은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시간을 갖고,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웃의 관심과 소통을 강조했다.

김현님 광산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은 "올해 동 지사협 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더욱 강화해 각 동 지사협이 이웃지킴이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